

10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0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국증시 급락 [다우 -231pt(-2.5%)]	미국 증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캐터필라, 프리포트 맥모란 등 주요 기업 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악재로 부각되며 급락세로 마감하였음.
美연준, CP·CD 매입 착수..최대 5,400억달러 투입 계획	FRB가 단기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에 착수한다고 밝힘. 매입 규모는 최대 5,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 연준은 "이번 조치로 자금시장의 유동성이 개선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간의 대출은 물론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자금 지원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음.
라이보 7일째 하락 [4.96%(-3bp)]	달러 유동성을 가늠하는 라이보(런던은행간금리)가 7일 연속 하락,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보호신청 이전 상태로 돌아갔음.
유가급락 [\$70.89(-\$3.36)]	유로 대비 달러 가치의 강세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대한 의구심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 유가 급락.
유럽 증시 혼조 마감..'실적 우려'	이날 영국 FTSE100 지수는 4,229.73으로 전일대비 1.24% 떨어졌고, 독일 DAX30 지수는 1.05% 하락한 4,784.41로 거래를 마감.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 투자심리에 악영향. 반면 프랑스 CAC40 지수는 3,475.4로 0.78% 상승.
사르코지 "EU회원국 국부펀드 설립 필요" 역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국부펀드를 설립해야 한다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1일 발표. 이 국부펀드는 비(非)유럽 투자자들이 유럽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치적인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
IMF, "더 많은 유럽은 행 도산할 것"	블룸버그통신은 21일 IMF가 유럽경제 연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은행들보다 유럽 은행들의 전망이 어둡게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보도. 유럽 은행들은 지난 2007년 이후 2,667억달러의 신규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2,280억달러의 손실과 상각을 기록.
10.21 부동산 대책	10.21 부동산 대출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사실상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골자. 하지만 부동산대출 규제가 허물어질 경우 중장기적 추가 부실을 낳아 금융시장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제목	주요 내용
한은 은행채 직매입 고려	올 4/4분기 은행채 만기 도래 금액이 25조원에 이르는 만큼 은행들은 한시라도 빨리 한은이 나서 은행채를 매수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은행채 금리 상승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은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
IPTV 지상파 재전송 합의	통신사업자들이 내달 IPTV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할 수 있게 됨, 가입자당 비용은 상용화 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격협상을 할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